

제 150 호

연중 제 28주일

1975. 10. 12.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집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목주의 기도는 승리의 무기

김 남 수 주교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다. 성모님을 공경하며 특히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자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달이다. 10월은 또한 전교의 달이기도 하다. 전교의 달이요, 로사리오 성월인 10월을 맞이하면서 이 두가지 목적을 함께 생각하는 것도 유익하리라.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다 목주의 기도를 즐겨 바치고 있지만 특히 파티마의 성모님이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라고 권고하신 후로는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더욱 열심히 목주의 기도를 바쳐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산 세력은 자유 세계를 잠먹듯 날이 갈수록 더욱 널리 침범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공산화하였고, 성모님이 나타나셨던 파티마를 품에 안은 포르투갈까지도 공산혁명의 와중에 휘말려 들어갔다.

성모님의 약속이 실책으로 돌아갔단 말인가? 그럴수는 없다. 성모님의 소망대로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소위 진보주의라는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목주의 기도는 물론이요, 성모님 공경마저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의 성직자들까지도 성모님 공경을 등한시하고 목주의 기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고 평신도들이 불평을 한다. 당연한 불평이다. 목주의 기도를 등한히 한 결과로 공산주의 세력이 팽창한다고 결론지어도 과히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오늘의 전교는 팽창해 가는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절에 와 있다. 공산주의 속을 복음화할 수 없다면 오늘의 전교사업은 반신불수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선 성모님의 소망대로 성모님께 신뢰하며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자! 성모님의 약속대로 러시아도 회개하고 공산세력도 회개하고 조국의 통일도 이루어지리라! 목주의 기도는 복음의 승리를 기약하는 우리의 무기다.

<경향잡지 10월호 권두언 참조>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여 감당할 자 누구오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습니다.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25: 6-10a 경향잡지 P 85)
주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충계송 ◎ 오래 오래 주님 궁에서 살으오리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

□제 2독서 (필립비 4: 12-14, 19-20 성서 P 455)
내게 힘을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우리 성소의 희망을 깨닫게 하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2: 1-14 성서 P 52)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라,

□신자들의 기도

1.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비오니 주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사명같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의무임을 깊이 깨달아 모두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까지 성모 어머님을 격정하시던 주여! 성모님께서 매 발현 하실때마다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라 하셨나이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목주의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3. 정의를 위하여 필박받는 이들을 위하여 주께 비오니 주여! 그들에게 굳센 의지와 용기와 그리고 정의에 항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

4. 갖가지 어려움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여! 모두가 일치된 사랑안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여 형제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술 가별진 이 없이 되어 굶주리게 되었어도 주님을 찾는 이는 아쉬운 복 없도다.

순정이 산책



10
당신은 얼마나!!!
월은 전교의 달!

의식제발과 협동 단결만이 살 길

-가톨릭 농민회 세미나를 마치고-

문 정 현 신부

요사이 농촌사정은 어떻습니까”하는 질문에 “옛날에 비하면 잘 살지요. 집집마다 텔레비존 없는 집 별로 없고 밭에서까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하는데요.” 하고 꽤 다행스럽고 만족스럽게 대답한다. 사실은 사실이다. 6. 25 이전에 텔레비존이 있었을리 없고 그나마 광석라디오도 없어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었으니 말이다. 지금 수화기를 귀에 끼고 광석라디오를 들고 있느니 차라리 앞집 옆집에서 들리는 트랜지스터를 듣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 전에 못가진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만족하는 농촌사람들은 미련하다. 남들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탐욕이 없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해야 할지는 모르나 「가난」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못가지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 농촌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만큼 가지지 못할 때, 농촌사람들이 공장 주인들이 가진 만큼 가지지 못할 때, 농촌사람들은 상업인, 공업인 보다 가난한 것이다. 어린시절에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집 자전차를 샀다고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쌀값이 올랐다고 좋아라 한다. 쌀 한 가마니에 이만원 받던 것을 이만오천원 받게 되었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다른 물건들이 이만원에서 삼만원으로 올랐다면 과연 쌀값이 오른 것인가? 그것도 모르고 오를것만 생각해서 좋아한다면 미련한 사람일 뿐이다. 미련해서 물건을 울리고 내릴 수 있는 정부로부터 속아가며 살게 된다.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이 쌀가마니를 팔고 싸놓고 사는게 아니다. 그저 추수끝에 빚졌고, 또 빚내서 먹고, 혹은 노동해서 쌀을 팔아먹는 사람도 대단히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더군다나 큰 공장 주인이 사는 만큼 잘 살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겨울내 저장해 두었다가 비쌀 때, 봄에 댈다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해마다 농사는 죽도록 지어도 다달쥐 제바퀴 돌리는 격이다. 그러기에 항상 가난하기만 하다. 힘을 뭉 재간이 없다. 있어도 살수 없고, 없어도 살수 있는 텔레비존, 라디오. 공장주인이나 상인은 돈을 잘 버는데 왜 없어서는 못사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쌀을 만드는 데도 돈을 벌기는 커녕, 항상 갈비가 흥청 흥청 휘도록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것을 팔자소관으로만 생각해야 하는가?

그건 그럴수 밖에 없다. 첫째로 다른 물건은 다 오르는데 쌀값만 안올리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저농산물가격 정책」 때문이다. 둘째로 모든 생산품은 단가가 싸면 싸 질수록 값이 내려야 하는데 올라가기만 하고, 그런데도 쌀값은 안올려 주기 때문이다. 올려도 다른 물건이 올라가는 같은 비율로 올라야 하는데 조금만 올려주기

때문이다. 이를 「부등과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작용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해야 한다. 셋째로 농민들은 농사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열심히 일하며 쌀 한톨이라도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개와 농민은 때리면 때릴 수록 땅에 주저 앉는다는 말도 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농민들의 약점이 이용되고 있다. 이를 「소농은존정책」이라 한다. 좀 보چه야 귀찮아서도 쌀값을 올려줄텐데!

하여간 정부가 농민의 편에서 봐야 잘 살 수 있다는 결론이다. 왜냐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쌀값이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협, 지도소 농조, 농협 등의 기관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 기관들은 농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을 위해서 최대의 봉사물 하여야 한다. 또 그것이 이 기관들의 목적이다. 그럼에도 이런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민을 강제하거나 법을 악용하여 수탈하거나 획일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농민은 한테 뭉쳐 규탄해야 할 것이다. 흔히 상급기관에 대한 맹종, 또는 한국 사회의 병폐인 「비애국적 관료주의」 습성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에 대처해서 농민은 모두 한데 뭉쳐 이들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다가 희생되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합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이라 하면 대부분 기업경영의 합리적 운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잉여 농산물특혜」 「적산 가옥 불하」 「이중 환율제특혜」 그밖에 부정한 방법들로 돈을 벌었다. 그리하여 거창한집, 거창한 시설을 해놓고 뽐내며 살고 있다. 이런데 매력을 느낀 나머지 소위 「황금만능 사상」으로 돈벌기 위하여 도시로, 도시로 떠나갈 것인가! 사람은 너무 못살면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지만 지나치게 잘살면, 더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잘살면 비인간화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농민은 한테 뭉쳐 열심히 일하고 뜻을 권리를 찾아서 인간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교구는 신우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가톨릭농민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받기 위해 출자하지 말고, 치료비를 빼먹기 위하여 출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병들어도 치료 받지 못할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음에서 출자를 해야 하겠다. 「이기주의」 정신을 가지고는 결코 잘 살수 없다. 뭉쳐서 서로 협동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농촌에 특별한 청년이 필요하다 하면서 논밭에서 울로 울려 보낸다면 항상.....

농촌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농촌에.

(주교님의 격려 말씀에서)

『구원사업의 협조자가 됩시다』

김 보 나 수녀

10월은 전교의 달이고 또한 목주 기도를 많이 하는 로사리오 성월이다.

예수님은 구원사업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께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성모님께서는 곧 “이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38) 겸손한 대답을 하시어 구원 사업의 첫 협조자가 되셨다, 성모님처럼 우리도 전교의 달에 용기 있는 대답을 해 보자. “예, 지도 주의 종입니다. 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는 거룩한 성업에 협조자가 되어 보자.

물론, 전교란 힘든 사업이다. 자기 힘만으론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해야하므로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

여러가지 모양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환경, 성격, 습관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같이 “마음이 들같이 굳고 악한 사람.” 「재물의 가시가 가득찬 사람」 「양심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 등등... 우리는 능부처럼 하나님 말씀의 좋은 씨앗을 사람의 마음 밭에 뿌려 주고 열심히 손질하고 가꾸어 추수를 해야겠다. 10월은 추수의 달이다. 누런 알곡, 빨간 감, 사과, 밤송이를 거두는 농부의 기쁨을 우리도 맛 보아야겠다.

어린 뿐만 아니고 어린이들도 전교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어린이 전교사는 쉽게, 흥미있게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해 줄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선행 카드”를 실시해 보면 더욱 열성을 일으킬 수 있다. 기도 생활도 충실해지고 전교, 선행을 하려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선행상”을 준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성심 학교에서는 중학생들이 “선행 카드”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9월 26일 “한국 순교 복자 추일”에 173명의 새 영세자와 10명의 첫 영성체자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딸이 되었다. 성심가족의 전교 실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읽기, 전교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즐거운 추억을 더듬어 보곤 하는 충실한 어른 전교사가 될 것이다. 십자가 상에서 “목마르다”하고 애타게 영혼을 부르신 예수님께 마실 물을 드리자.

어른, 어린이 모두 다 함께 구원 사업의 협조자가 되어보자.

(전주 성심 여자 중학교 근무)

요심이 (116) 김병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계약 전문

김 을 태 (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 의 상 실

최 춘 자 (로사리오)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체과 앞
전화 ㉠ 6219

□개업인사□

여러분의 전자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종합전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김 중환 (원선시오) 아원
●취급품...T.V, 냉장고, 전기밥솥, 발통, 전기장판 등
●위치...팔달로변 이외과 남쪽 10m (㉠3332)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 (2층)

이 상 범 (필로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6544

※교우들의 집단장은!※

동양 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전주 뇌병원 옆
전화 ㉠ 2765 · 5986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 (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의산 농장 나환자촌 공소 회사금

<중앙> 박찬준씨(의인): 10,000원, 서정필씨: 5,000원. 감사합니다.

1. 행복한 가정 운동 세미나: 1975년 10월 15일 오후 2시-16일 오후 2시 <참가비> 1,500원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2.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창립총회: 1975년 10월 19일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자, 대상: 본당 사도회장, 각 지구 분과위원장. 교구 단위 액운 단체 대표 (L.M. 교리교사 연합회 푸르실로 M.B.W, J.O.C, 대학생및 중고연합회, 신용조합, 의료협동조합, 행복한가정운동 전주교구 위원회)
 3. 5지구 행정상 광활, 교통 불편하여 2개 지구로 분할
5지구: 우주, 진안, 장계 6지구: 임실, 순창, 남원.
- * 10월 12일 주일 현대 사목헌장 교육을 위한 1일 본당 신부 실시.
김찬철 신부: 덕진 합승천 신부: 천동. 김중걸 신부: 중앙. 박중근 신부: 복자. 김동준 신부: 서학동한섭 신부: 노송동.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이상용

1. 새로 구성된 사도회 총회: 공식 미사후
2. 꾸리아 윌레회: 오늘 오후 2시 성당에서
3. 성심 부녀회 윌레회: 다음주
4. 미남된 교무금 10월중에 완납합니다.
5. 금주 마당 포장 공사비 회사금
진병기: 5,000원 전옥순, 이수산나, 김복례, 신종남
서월순, 허인순: 각 500원
김복식: 3,000원 정계순: 300원 이비오, 이마리아
조한서: 각 200원 계: 11,900원 감사합니다.
6. 서정필씨 의산 농원 나환자촌 공소기금: 5,000원
회사, 감사합니다.
군인주일 특별 현금: 10,31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윌레회: 공식 미사후
2. 애령회 간부 윌레회: 다음주
3.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청년조직 미혼 남녀로서 20명이 10월 3일 입회. 축하합니다.
4. 새 성당 의자 장식금 회사 하신분 감사드립니다.
주계: 24,2430원 누계: 423,930 5원.
5. 성당 신축 현금에 감사드립니다.
중앙 오혜레나: 50,000원, 박강웅: 3,000원
주계: 53,000원 누계: 4,160,627원
군인주일 특별 현금: 3,685원
신축성미 누계: 203.5회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중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봉헌금 납부를 금주간에 완납합니다.
2. 반 미사: 이웃 형제까지 전의하시서 많은 참석 요망 (13일) 금암6반 김경숙씨 (17일) 덕진1반 임옥순씨며 덕진2반 엄보익씨며 주일발표 덕진3반 박은혜씨며 주일발표

3. 신용조합 윌레회: 공식 미사후
군인주일 특별 현금: 4,695원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다음 주일은 전교주일 이오니 특별헌금 준비 요망
2. 복자 성우회 윌레회: 공식 미사후
3. 미남 교무금 속히 완납 요망
4. 주일 봉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군인 주일 현금: 8,285원
미사에 나오신분 (남)94명 (여)298명 계: 392명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준

1. 상관 애령회 및 사도회 윌레회: 공식 미사후
2. 상관 미사 관계로 10시 미사후 예비자 교리 없음
3. 중·고 학생 미사 및 교리: 토요일 많은 참석 바람
4. 사도 전례 위원회: 다음주 저녁 미사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혼배 미사가 있습니다.
애령회비: 5,340원 계: 34,790원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한복섭
사도 회장 양윤모

1. 사도회 각 분과 위원회 교문단체 제1차 모임
공식 미사후
2. 중, 반회장 모임: 오늘 저녁 7시 미사후
3. 자모회 윌레회: 공식 미사후
4. 성 가정회 윌레회: 오늘 오후 3시
5. 성지 순례 예정 계획: 11월 2일 화산 성당 기차편
6. 미사 시간 변경: 주일 어린이 미사 오후 2시
토요일 학생 미사 오후 4시
7. 대건 신용조합 윌레회: 14일 저녁 7시 40분
참석자에게 상품 증정 합니다.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태인 정	새 사도 임원의 전도 축복입니다	19,83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안동 황	사도회	43,960원	
		학생회 윌레회	원			성심회 윌레회	47,815원	
제 2 지구	대 윤명중합	신우회 윌레회	17,850원	제 4 지구	중 노덕부서 전	추경전 성사	4,860원	
		새 사도 임원의 전도 축복을 받습니다	54,800원			중 노덕부서 전	사도회 총회	53,256원
		학생회 청년회 주일 학교 소풍 꾸리아 회의 주일 학교 추계 소풍	37,595원 24,880원 17,875원 17,430원				신용 조합 윌레회	26,350원
제 3 지구	고 금 외	본당 관할 구역 가정 방문	3,215원	제 5 지구	남 부순 임장 전	신용 조합 윌레회	1,5170원	
		신우회 윌레회	10,645원			복자 성우회 윌레회	22,185원	
						상관 애령회	18,170원	
						사도회 각 분과 위원회 교문단체 1차 모임	74,082원	
						L.M. 옥회 행사	14,035원	
						새 임원의 전도 축복 받습니다	5,205원	
						청년회 윌레회	원	
						청년회 윌레회	3,400원	
						새 사도 임원의 전도 축복 받습니다	4,006원	